

비르지니는 재산도 없는데다가, 상속도 받지 못했네. 그러니 그 후로 자네는 자네 혼자서 일한 몫을 그녀와 나눠야 했을 거야. 교육을 받아 좀 더 세련된 사람이 된 데다가 불행한 일로 인해 더욱 담대해져서 돌아왔으니, 자네는 그 아이가 하루하루 억눌려 사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걸세. 비르지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해보게. 노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식솔까지 단둘이서 부양해야한다는 고충으로 인해 그녀의 괴로움도 자네의 괴로움도 더욱 커졌을 걸세.

자넨 이렇게 말하겠지. 총독이 우리를 도와줬을 겁니다. 공직자들이 그토록 자주 바뀌는 식민지에서 라 부르도네 같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을지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? 행실도 나쁘고 도리도 모르는 수장이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지 않나? 자네 부인이 보잘 것 없는 도움이나마 얻기 위해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할 필요까진 없었을 거라고 할 수 있나? 혹은 그녀가 나약한 사람이었더라면, 자네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을 지도 몰라. 아니 그녀가 현명했더라면, 자네는 언제까지고 초라한 사람이었을 지도 모르지. 그녀의 아름다움과 그녀의 덕성 덕분으로, 그나마 보호해주길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꺾박이라도 받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일세!

자넨 내게 말하겠지, 부와 상관없는 행복이 남아 있다고, 사랑하는 사람을, 다름 아니라 스스로 연약하기에 그만큼 더 우리에게 애정을 쏟는 그 상대방을 보호하고, 나 자신의